

산잔 시대~류큐 왕조 시대(14 세기~19 세기 후반)

중국과의 교역을 뒷받침해온 중계지

중국과의 조공 무역이 번성했던 시대에 자마미지마 섬은 해로상의 피난항이나 바람이 멎기를 기다린 ‘순풍을 기다리는 항구’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.